

가정교사의 이타적 태도와 수업 중 도덕성 지도 정도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박경희* · 김성교** · 채정현***

우신고등학교* · 상도중학교** ·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

Home Economics Teachers' Altruistic Attitudes and the Levels of Morality Teaching Performance in Ulsan City

Park, Kyeong-Hee* · Kim, Sung-Gyo** · Chae, Jung-Hyun***

*Home Economics Teacher, Woosin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 SangDo Middle School***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E(home economics) teachers' altruistic attitudes and levels of moral education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urvey mailed to the middle and high school HE teachers in Ulsan city. The 114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SPSS/WIN for 10.0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of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rivation, T test, and One-way ANOVA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the follows:

First, HE teachers' altruistic attitudes were higher than average. They considered that trying their best in the virtue of social responsibility was very important. And they were inclined to share in others' situations and emotions with the empathic attitudes.

Second, the levels of moral education in HE class were higher than average. Teachers valued moral virtues highly, such as respect for life, diligence and sincerity, courage, and respect for parents and the elderly.

Third, HE teachers' individual variables, such as institution type shows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levels of moral education.

Teachers' group with more educational career and aged teachers' group, and public school teachers' group provided moral education more than the others.

Key Words: 가정과교사(home economics teacher), 이타적 태도(altruistic attitudes), 도덕성 교육(moral education), 도덕성(morality), 가정과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I.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학자들(김태길, 1986; 한완상, 1993; 김동규, 1995)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도덕적 타락이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사회구성원의 인격이나 의식개혁에 있는데 이러한 의식개혁은 사회제도나 정치 개혁보다는 바로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이라는 교육적 수단이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생활의 장이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또래와 어울리는 주된 장소이기에 서로 돕고,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타적 태도와 도덕성을 교육하기에 유용하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는 이타주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Eisenberg, 1986; 김성갑, 2001; 이지연, 2001).

가정(家庭)은 유아가 부모로부터 이타적인 애정을 받는 최초의 장소이기에 유아가 이타적인 태도와 공동체를 위한 도덕성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다. Curran(1994)은 가족원들 사이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타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김태길(1986) 역시 한국의 바람직한 가정은 각 가족원 개인의 자아를 성숙하게 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도덕성을 지닌 가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베커(1981)는 사람들이 가장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전형적인 영역으로 가정을 손꼽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정은 이타적이고 도덕성이 있는 인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원천이 된다(이정전, 2003, 재인용).

가정(家政)과교육은 학교교육에서 가정(家政)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가정(家庭)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가정(家政)

교과는 현재 가정(家庭)의 일원이며 미래의 가정(家庭)을 형성할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지에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 이 점에서 가정교과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의 핵심이 되는 이타주의와 도덕성을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최근 가정과교육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은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태도를 지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하는 도덕적인 자질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과수업 시간에 이러한 이타주의와 도덕성을 함양시킬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Ohio Department of Education, 1995).

미국의 가정교육학자인 Thomas(1997)도 가정과교육에서 핵심으로 삼아야할 개념을 이타주의(altruism)라고 언급하였다. 그녀는 이타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념이기에 타인에 대한 존경이나 돌봄을 전제로 하는 가장 수준 높은 도덕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도덕적인 개념은 도덕교과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나 오히려 가정생활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가정교과에서 다루기에 더욱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타주의 같은 도덕성은 객관적인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 판단이 요구되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성찰하고 평가하고 내면화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과교사는 가정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을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성찰하고 평가하고 내면화할 수 있어 이타주의와 도덕적 품성을 지니게 하여야 할 것이다(채정현 외, 2003; 양정혜·신상옥, 1998).

학교교육에서의 이타주의나 도덕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드물게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부모나 교사로서의 모델링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곽삼근, 1993; 손봉호·김해성, 1997; 김남성, 2000)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집단차원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타성이나 도덕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현주, 1995; 박성희, 1999)과 이타적 행동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채현탁, 1999; 신수정, 2000)이 있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알아 본 연구는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었고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 가정교육에서는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성에 대한 연구(문성희·채정현, 2001; 채정현 외 3인, 2003; 김성교·채정현, 2003; 조미옥·채정현, 2005)를 시작하였다. 문성희와 채정현(2001)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채정현 외 3인(2003)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과수업에서 실천적 추론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개발하고 실행한 후 이 수업이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시키는지 알아보았다. 김성교와 채정현(2003)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가정과수업에서 도덕성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조미옥과 채정현(2005)은 학생이 아닌 중학교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가정과수업 시간에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는가와 도덕성 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중학교 가정과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도덕성 내용만을 조사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학생은 물론 고등학교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도덕성 내용뿐만 아니라 이타주의에 관한 내용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물론 고등학교 가정과교사도 모두 포함하였고 가정과교사의 이타적 태도와 수업에서의 도덕성 덕목과 이에 따른 도덕성 내용의 지도 정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가정과교사의 이타적 태도와 가정과수업 중 도덕성 덕목과 이에 따른 도덕성 내용 지도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 변인에 따라서 이타적 태도와 도덕성 내용 지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이타주의

이타주의는 고대 희랍 시대의 종교와 철학 등의 분야에서부터 근대 사회학에 걸쳐 오랜 역사를 가지고 논의되어 왔으나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다(서봉연, 1984). ‘이타주의(altruism)’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인 Comte는 이타주의란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이지연, 2001). 다른 사회심리학자들도 Comte의 정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Krebs(1982)는 이타주의를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복지를 희생하려는 의지’로 규정하고 있다. Batson(1991) 역시 이타주의는 ‘보상 획득이나 처벌 회피 등의 이기적인 목적을 두지 않고 순수하게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Macaulay와 Berkowitz(1970)는 이타주의를 ‘외적인 자원(external sources)으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행해진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Daniel Bar-Tal(1980)은 이타주의를 친사회적 행동과 동일시하여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김혜령, 1995 재인용).

위의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이타주의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Berkowitz와 Daniels(1963; 조휘일, 1998, 재인용)는 이러한 이타주의를 사회적 책임감과 정서적 공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적 책임감이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이다. Bryan과 Walbek(1970)도 어떤 한 개인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Berkowitz와 Daniels(1963)도 외적 보상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욕구

에 따라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규범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동기를 자극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규범요인이 이타주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은 이타행동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공감(empathy)’이라는 개념은 19세기말 독일어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공감에 대한 관심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되었지만 인간의 긍정적인 사회행동에 대한 탐구가 본격화된 시기는 1960년대 이후이다. 도움을 받은 상대방이 느끼는 기쁨·행복 같은 긍정적 정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은 이타적 행동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타적 행동에 대한 중요한 예측치가 되기도 한다. 이제까지 이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하나는 개인적 고통정서와 공감정서를 서로 결합하여 이 둘을 ‘공감적 고통’이라는 통합적인 용어로 표현하며 실행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고통정서와 공감정서를 엄밀히 구분하여 실행한 연구이다(이지연, 2001, 재인용).

이타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크게 사회규범적 접근과 공감적 접근으로 나뉘어 진다. 사회규범적 접근은 ‘사회규범이 이타주의의 발생과 이타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며, 사회규범은 각 문화와 사회에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접근방식이다(김혜령, 1995). 이타주의와 관련된 사회규범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규범, 상보성 규범, 형평의 세 가지가 있다. 사회적 책임의 규범(social responsibility norm)은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규범이며 상보성 규범(reciprocity norm)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을 도와줄 의무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equity) 규범은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게 벌을 받거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장성수·이현남, 1992). 김혜령(1995)은 이들 사회 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사회적 책임의 규범으로 여기고 있으며, Berkowitz와 Daniels (1963)도 실험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 규범에 의해 도움행동이 유발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공감적 접근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적 정서가 일어나게 되면 타인의 처지와 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에 이타주의를 형성한다고 여기는 접근방식이다. Batson은(1981)은 공감적 반응에 의한 도움 행동의 동기가 이타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공감이 높게 형성된 집단에서는 회피가 쉽거나 어렵거나에 상관없이 도움 행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감에 의해 동기화 된 사람은 고통 받는 타인을 돕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을 위해 도움행동을 하였다(김혜령, 1995 재인용). 이에 Batson은 타인의 처지에 대한 공감은 이타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2. 도덕성

도덕성이란 인성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선(善)을 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며, 이를 행하고자 하는 인지적 능력이며, 실제로 의지의 결과로 실행된 행동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도덕성은 인성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 그리고 행동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데, 인성적 관점에서 도덕성은 ‘선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심성’이며, 책임성, 건전성, 정직성, 신뢰성이 대표적인 도덕성 예가 된다(양병한·김종구, 1994).

인지적 관점에서 도덕성은 ‘옳고 그름에 대한 사고능력, 판단능력’이다. 행동적인 관점에서는 도덕성을 ‘도덕적 원리에 기반을 둔 실천력’이라고 보고, 사회성원으로서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도덕 원칙에 따라 새로운 도덕 원리를 창출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김현배, 1994; 민병석, 1998). 그러나 각 관점은 도덕성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제 상황에서는 이 세 관점의 도덕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통합하여 도덕성의 개념을 조명하고 있다(고미숙, 2000; 박윤명, 1997; 이진웅, 1996; 남궁달화, 1995; 문현상, 1995; 안영후, 1994). 따라서 통합적 관점에서 도덕성이란 어떤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을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판단하는 능력과 자신과 타인의 요구와 흥미, 느낌을 인식하고 배려하여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특성

이라고 정의하였다(이진웅, 1996).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01)은 인성, 인지, 행동을 합한 통합적 측면의 도덕성과 인간에서 나아가 환경까지 고려하는 도덕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도덕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 내용은 경로 효친(경로, 효·우애), 정직, 절제(인내·자기통제, 절약·검소), 근면·성실, 생명존중, 타인배려(기본예의, 친절·양보·용서, 연민·헌신·봉사), 평등 및 인권존중, 공정성, 신의, 용기, 책임·협동, 민주성, 애국·애족, 인류애, 공동체 의식(공중도덕: 질서 지키기, 공공물 사용, 공동규칙·법 준수), 환경보호(자연·자원 보호, 자원 재활용), 성윤리, 정보윤리로 구성되어 있다(박효정·정광희, 2001).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이다. 표집방법은 전수표집법을 사용하였고 울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원명부(2004)에 제시된 모든 중고등학교(중학교가 49개교, 고등학교 42개교)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현재 『기술 가정』 교과 중 가정영역을 가르친 경험이 있거나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법으로 질문지 배부를 통한 우편조사법이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우편으로 150부 발송하였으나 114부(76.0%)만 회수되어 이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형식의 조사도구는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하위 영역	전체 문항수
이타적 태도	사회적 책임감(6), 정서적 공감(18)	24
도덕성 덕목	생명존중(2), 근면성실(2), 용기(1), 경로효친(1), 타인배려(4), 환경보호 의식(3), 성윤리 의식(2), 공동체 의식(2), 절제(1), 정직(2), 평등인권존중(3), 인류애(1)	24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종교 유무, 경제력, 성장 지역, 전공, 전공만족도, 학교유형, 학교 설립유형, 사회봉사 활동유무	10

() : 하위영역 문항 수

로 이타적 태도(24문항), 가정과수업 중 도덕성 덕목과 이에 따른 도덕성 지도 내용(24문항), 교사들의 일반적인 사항(10문항)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타적 태도에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조사도구는 Berkowitz와 Lutterman(1968)의 척도(SRS: Social Responsibility Scale)를 김혜령(1995)이 수정·보완하여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문항은 김혜령(1995)이 사용한 전체 8문항 중 신뢰도 검증 결과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2문항을 제외시키고 6문항만을 실제 분석에 이용하였다.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Mer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적 공감척도(EES: Emotional Empathy Scale)를 김혜령(1995)이 수정·보완하여 번역한 18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정교과 관련 도덕성 덕목과 이에 따른 지도 내용은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개발한 도덕성 지표의 하위 덕목 18개 중에서 가정과학습을 통하여 주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12가지 도덕성 덕목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도덕성 덕목에 대한 자세한 도덕성 지도 내용은 제 7차 교육과정 해설서(1997)와 다양한 관련 문헌(조미옥·채정현, 2005; 오윤희·채정현, 2005; 김성교, 2003; 박효정·정광희, 2001; 유태명 외, 2002; 유난숙·김영남, 1997; 서병숙·왕석순, 1996; 이연숙, 1995)을 분석하여 총 24문항 추출하였다(표 2 참조).

이타적 태도와 도덕성 덕목과 이에 따른 도덕성 지도 내용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이타적 태도가 높고 해당 도덕성 내용에 관한 지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이타주의 태도에 대한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하위영역 모두 .50 이상이었고, 도덕성 덕목의 신뢰도 역시 하위영역 모두 .60 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fo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정과교사의 이타적 태도

가정과교사의 이타적 태도에서 사회적 책임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 중간 점수인 3점을 넘었으나 사회적 책임감(3.92)이 정서적 공감(3.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먼저 이타적 태도 중 사회적 책임감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2>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평균이 3.92로 비교적 높았다. 특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의무이다’(4.52),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4.14), ‘사람들끼리 멀리 떨어져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살기 편할 것이다(역코딩)’(4.05)는 4.0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은 우리가

<표 3> 정서적 공감에 대한 태도

하위내용	M(SD)
기뻐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같다는 생각이 든다(역코딩).	4.43(.69)
어떤 노래를 들으면 나는 마음이 행복해진다.	4.25(.63)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나는 몹시 화가 난다.	4.23(.53)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보면 나는 마음이 심란해진다.	4.13(.71)
어떤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동정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이 난다(역코딩).	4.07(.80)
동료가 자신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역코딩).	4.06(.77)
모두 한 가지씩 고민이 있어 보인다.	4.04(.76)
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역코딩).	3.91(.77)
고통 받는 동물(개, 고양이 등)을 보면 나는 몹시 마음이 아프다.	3.89(.84)
주위 사람들이 우울해 하면 내 마음도 편치 못하다.	3.84(.57)
우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마음이 심란해진다.	3.75(.78)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외로이 있는 낯선 사람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든다.	3.69(.88)
나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3.55(.83)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감정이 내게 실제상황처럼 느껴진다.	3.54(.84)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역코딩)	3.25(.89)
내 기분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3.20(.90)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며 안달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침착하게 있을 수 있다(역코딩)	3.05(.88)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초조해 보이면 나도 초조해진다.	2.89(.88)
전 체	3.77(.33)

<표 2> 사회적 책임감 태도

문항 내용	M(SD)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의무이다.	4.52(.79)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	4.14(.64)
사람들끼리 멀리 떨어져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살기 편할 것이다(역코딩).	4.05(.85)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므로 걱정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역코딩).	3.85(1.20)
나는 학교에서 특별한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3.47(.97)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 중 일부를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에 사용해야한다.	3.46(.91)
전 체	3.92(.45)

해결할 수 없으므로 걱정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역코딩)' (3.85), '나는 학교에서 특별한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3.47),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 중 일부를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에 사용해야한다'(3.46)는 4점 미만의 점수를 보였으나 모두 3점 이상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대부분의 가정교과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인간관계를 중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행동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에 대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자발적으로 학교일에 참여하는 의식은 다소 소극적이라 사료된다.

이타적 태도 중 정서적 공감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에 대한 태도는 3.77로 비교적 중간보다 높은 편이었다. 특히 '기뻐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역코딩)(4.43), '어떤 노래를 들으면 나는 마음이 행복해진다'(4.25),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나는 몹시 화가 난다'(4.23),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보면 나는 마음이 심란해진다'(4.13), '어떤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동정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이 난다'(역코딩)(4.07), '동료가 자신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역코딩)(4.06), '모두 한 가지씩 고민이 있어 보인다'(4.04)는 4.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초조해 보이면 나도 초조해진다'(2.89)는 3.0 미만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보면, 가정교과사들은 타인의 처지와 감정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개인적 변인에 따른 이타적 태도 차이

가정교과사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이타적 태도 차이를

<표 4> 가정교과사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이타적 태도 차이

이타주의 태도	학교 설립유형	N	M(SD)	t-test
사회적 책임	공립	87	3.97(.44)	2.00*
	사립	24	3.76(.48)	
정서적 공감	공립	87	3.81(.33)	2.04*
	사립	24	3.65(.29)	
전체	공립	87	3.87(.31)	2.28*
	사립	24	3.70(.30)	

* p<.05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타적 태도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책임과 정서적 공감 모두에서 학교설립 유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교과사(3.87)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교과사(3.70)에 비해서 사회적 책임감과 정서적 공감을 포함한 전체 이타주의 태도가 더 높았다.

3. 가정교과사의 수업 중 도덕성 덕목과 이에 따른 도덕성 내용 지도 정도

가정교과사가 수업 중 도덕성의 덕목을 어느 정도 지도하느냐에 대한 결과는 <표 5>에서 나타났듯이, 생명존중(4.18), 근면성실(4.07), 용기(4.06), 경로효친(4.05), 타인배려(3.95), 환경보호의식(3.93), 성윤리 의식(3.83), 공동체의식(3.79), 절제(3.76), 정직(3.75), 평등과 인권존중(3.70), 인류애(3.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덕목에 따른 도덕성 내용을 어느 정도 지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해 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24가지의 도덕성 내용 중 21개의 내용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매우 강조하여 지도한다'와 '다소 강조하여 지도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30%이상이 '매우 강조'하여 지도하는 도덕성 내용은 성에 대한 책임감(47.3%), 인간존엄(41.2%), 타인 배려를 위한 대화법(38.7%), 일가치관(33.3%), 왕따를 돕는 용기(30.7%)이었다. 응답자의 반 정도가 '다소 강조'하여 지도하는 도덕성 내용은 어린존중(61.4%), 역할평등(56.1%), 생활예절(53.5%), 절제

<표 5> 가정과수업 중 도덕성 덕목과 이에 따른 도덕성 내용 지도 정도

덕목	내용	전혀 지도하지 않는다	별로 지도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강조하여 지도한다	매우 강조하여 지도한다	M(SD)
생명 존중	인간존엄	0(0.0)	0(0.0)	9(7.9)	58(50.9)	47(41.2)	4.18(.59)
	안전권리	2(1.8)	1(0.9)	22(19.3)	56(49.1)	33(28.9)	
근면 성실	일가치관	0(0.0)	1(0.9)	18(15.8)	57(50.0)	38(33.3)	4.07(.65)
	주변청소	0(0.0)	4(3.5)	24(21.2)	53(46.9)	32(28.3)	
용기	왕따도움	0(0.0)	2(1.8)	24(21.1)	53(46.5)	35(30.7)	4.06(.77)
경로 효친	어른존중	0(0.0)	2(1.8)	16(14.0)	70(61.4)	26(22.8)	4.05(.66)
타인 배려	대화법	0(0.0)	3(2.7)	10(9.0)	55(49.5)	43(38.7)	3.95(.47)
	상충되는 욕구 해결법	0(0.0)	6(5.4)	48(43.2)	50(45.0)	7(6.3)	
	다양가족 관심	1(0.9)	5(4.5)	34(30.6)	43(38.7)	28(25.2)	
	생활예절	0(0.0)	2(1.8)	15(13.2)	61(53.5)	36(31.6)	
환경 보호 의식	옷재활용	1(0.9)	9(7.9)	48(42.1)	45(39.5)	11(9.6)	3.93(.60)
	음식과 환경문제	0(0.0)	0(0.0)	8(7.0)	58(51.8)	47(41.2)	
	친환경 제품 사용	1(0.9)	1(0.9)	27(23.7)	57(50.0)	28(24.6)	
성윤리의식	성에 대한 책임감	0(0.0)	0(0.0)	11(10.0)	47(42.7)	52(47.3)	3.83(.64)
	성 문제	2(1.8)	8(7.0)	36(31.6)	50(43.9)	18(15.8)	
공동체의식	공동주거	1(0.9)	7(6.1)	47(41.2)	48(42.1)	11(9.6)	3.79(.62)
	식생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0(0.0)	2(1.8)	22(19.3)	58(50.9)	32(28.1)	
절제	절제 있는 의복 구매	0(0.0)	5(4.4)	33(28.9)	60(52.6)	16(14.0)	3.76(.74)
정직	정직소비	0(0.0)	8(7.0)	20(17.5)	60(52.6)	26(22.8)	3.75(.82)
	패스도용	3(2.6)	11(9.6)	38(33.3)	41(36.0)	21(18.4)	
평등 인권 존중	양성평등	0(0.0)	4(3.5)	38(33.3)	53(46.5)	19(16.7)	3.70(.58)
	유니버설 디자인	2(1.8)	11(9.6)	54(47.4)	40(35.1)	7(6.1)	
	역할평등	0(0.0)	2(1.8)	23(20.2)	64(56.1)	25(21.9)	
인류애	세계 식량문제	3(2.7)	8(7.1)	47(42.0)	43(38.4)	11(9.8)	3.46(.87)

있는 의복 구매(52.6%), 정직소비(52.6%), 음식과 환경문제(51.8%), 인간존엄(50.9%), 식생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50.9%), 친환경 제품 사용(50.0%), 일가치관(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50.0%), 타인을 배려하는 대화법(49.5%), 안전권리(생명과 관련되어 안전해야할 권리의 중요성)(49.1%)이었다.

다시 말해서 3개의 내용(의복 재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유니버설 디자인, 세계 인구의 식량 문제)을 제외하고 '다소 강조하여 지도한다'에 대부분이 응답하였다. 하지만 제외된 3개의 내용이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보아, 가정교사들은 수업 중에 위의 도덕성

내용을 비교적 많이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옥·채정현(2005)의 연구 결과와 중요도의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하였다.

4. 개인적 변인에 따른 도덕성 내용 지도 차이

가정교사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도덕성 내용 지도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듯이, 학교설립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내

<표 6> 가정과교사의 개인 변인에 따른 도덕성 내용 지도 차이

덕목	내용	변인	집단	N	M(SD)	t(F)
생명존중	인간존엄	학교설립유형	공립	87	4.43(.56)	3.07**
			사립	24	4.00(.72)	
근면·성실	주변청소	학교설립유형	공립	87	4.10(.81)	2.41*
			사립	24	3.67(.70)	
용기	왕따도움	연령	40세 이하	53	3.91(.77)	-2.05*
			41세 이상	61	4.20(.75)	
		성장지역	도시	79	3.96(.81)	-2.16*
			농촌	33	4.30(.64)	
		학교유형	중학교	78	4.19(.67)	2.76**
			고등학교	36	3.78(.90)	
환경보호의식	친환경 제품 사용	연령	40세 이하	53	3.79(.79)	-2.26*
			41세 이상	61	4.11(.73)	
		경력	10년 미만	29	3.76(.83) ^a	(3.97*)
			10-19년	49	3.88(.75) ^{ab}	
			20년 이상	36	4.25(.69) ^b	
		성윤리의식	성에 대한 책임감	연령	40세 이하	51
41세 이상	59				4.51(.63)	
경계력	하			9	4.00(.50) ^a	3.46*
	중 상		75 26	4.33(.66) ^{ab} 4.62(.64) ^b		
성 문제	학교설립유형		공립	87	3.76(.88)	2.75**
			사립	24	3.21(.83)	
타인배려	대화법	학교설립유형	공립	84	4.35(.74)	2.58*
			사립	24	3.92(.65)	
	상충되는 욕구 해결법	연령	40세 이하	51	3.33(.62)	-2.71**
			41세 이상	60	3.68(.73)	
		경력	10년 미만	27	3.11(.70) ^a	12.48***
	10-19년 20년 이상		49 35	3.47(.62) ^a 3.91(.61) ^b		
	다양가족 관심	종교 유무	유	73	3.68(.90)	-2.40*
			무	38	4.11(.83)	
		학교유형	중학교	75	3.60(.85)	-4.18***
			고등학교	36	4.31(.79)	
경력	10년 미만	27	3.48(.98) ^a	3.66*		
	10-19년 20년 이상	49 35	3.84(.80) ^{ab} 4.09(.89) ^b			

<표 계속>

덕목	내용	변인	집단	N	M(SD)	(F)
공동체 의식	건강한 식생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력	10년 미만	29	4.21(.77)	(3.12*)
			10-19년	49	3.86(.74)	
			20년 이상	36	4.19(.67)	
정직	정직한 소비행동	성장지역	도시	79	3.78(.87)	-2.53*
			농촌	33	4.21(.65)	
		연령	40세 이하	53	3.70(.85)	-2.65**
			41세 이상	60	4.10(.77)	
		경력	10년 미만	29	3.52(.91) ^a	(5.19**)
			10-19년	49	3.98(.69) ^{ab}	
			20년 이상	36	4.14(.83) ^b	
		경제력	하	10	3.90(.57)	(5.05**)
			중	77	3.77(.87)	
			상	27	4.33(.62)	
패스도용 문제	연령	40세 이하	53	3.38(.93)	-2.07*	
		41세 이상	61	3.75(.99)		
성장지역	도시	79	3.39(.95)	-3.23**		
		농촌	33		4.03(.95)	
인류애	세계 식량문제	연령	40세 이하	52	3.21(.83)	-2.85**
			41세 이상	60	3.67(.86)	
		경력	10년 미만	28	3.07(.90) ^a	3.84*
			10-19년	49	3.57(.79) ^b	
			20년 이상	35	3.60(.88) ^b	
		경제력	하	10	3.60(.70)	5.04**
중	76		3.29(.88)			
상	26	3.88(.77)				

* p<.05 ** p<.01 *** p<.001

용은 인간존엄, 주변청소(주변청소를 성실히 하는 근면 정신에 대한 내용), 성문제(인터넷상 음란패설, 십대의 성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대화법(타인을 배려하는 대화법)이었다. 자세히 말하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서 이러한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 내용은 왕따도움(왕따를 돕는 용기), 친환경 제품 사용, 성에 대한 책임감, 가족끼리 상충되는 욕구 해결법, 정직한 소비행동, 패스도용 문제,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한 관심이었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의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정과 수업 중 더 많이 강조하여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

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인 내용은 친환경 제품 사용, 가족끼리 상충되는 욕구 해결법, 다양가족 관심(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 건강한 식생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직한 소비행동,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였다. 하지만 건강한 식생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경력이 10년 미만인 집단의 교사와 20년 이상인 집단의 교사가 10년에서 19년 경력의 교사 집단에 비해서 더 많

이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를 보인 내용은 성에 대한 책임감, 정직한 소비행동,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한 관심이었다. 구체적으로 경제력이 상인 가정교사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이러한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 내용은 다양가족 관심(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서 그리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 내용은 정직한 소비행동이었다. 구체적으로 농촌에서 성장한 교사가 도시에서 성장한 교사에 비해서 정직한 소비행동을 더 많이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이러한 결과는 조미옥·채정현(2005)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연령과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가정과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도덕성의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였고 경제력이 높은 교사, 종교가 없는 교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농촌에서 성장한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일부의 도덕성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울산광역시에 근무하는 중·고등학교 가정교사에게 대한 이타적 태도와 가정과수업 중 도덕성 지도 정도, 그리고 개인적 변인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사들의 이타적 태도는 보통 이상으로 높다. 특히, 그들은 사회적 책임감 중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며 교사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관계를 중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행동 경향이 높다. 이타적 태도 중 정서적 공감에 대한 태도에서도 교사들은 타인의 처지와 감정에 대해 정서적 공감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가정교사는 가정과수업 중 도덕성 덕목에 대한 지도를 보통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가정과수업에서 생명존중, 근면성실, 용기, 경로효친, 타인배려, 환경보호 의식, 성윤리 의식, 공동체 의식, 절제, 정직, 평등과 인권 존중, 인류애의 순으로 지도하고 있다.

셋째, 교사 개인별 변인에 따른 이타주의 태도와 도덕성 내용 지도에 차이를 보인다. 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교사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교사에 비해서 이타주의 태도가 더 높다. 한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연령과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가정과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도덕성의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였고 경제력이 높은 교사, 종교가 없는 교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농촌에서 성장한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일부의 도덕성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술가정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의 가정교사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후속 연구자는 조사 대상자를 전국의 가정교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일회적 설문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것이므로, 연구 결과를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향으로 반응하려는 피험자의 주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에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면접법이나 관찰법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장기간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영역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이타주의를 알아보려 하였으므로, 가정영역을 가르치는 교사 변인들만을 통제하였으므로 이타주의나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변인들도 통제할 수 있는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분석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완숙(1998). 가족의 가치지향과 부모의 도덕성 및 훈육이 청소년의 시면적 자질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지**, 36(12), 11-23.
- 고미숙(2000). 도덕성의 세 가지 측면의 구분에 따른 도덕교육의 오해와 이해. **교육철학**, 23, 1-26.
- 곽삼근(1993). 가족연구에 대한 과학적 접근. **연세 논총**, 26, 31-53.
- 김남성(2000). **교육상담학**. 서울: 교학과학사.
- 김동규(1995). 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인의 도덕성 연구**. 아산복지재단, 180-181.
- 김성갑(2001). 모델링 학습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교 · 채정현(2003). 중학생의 가정과교사 특성지각과 가정과수업을 통한 인성적 도덕성. **대한가정학회지**, 41(10), 57-73.
- 김태길(1986). **성숙한 시민 개방된 사회**. 서울: 교육과학사.
- 김현배(1994). 도덕성 향상을 위한 대화학습 모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령(1995). **사회사업전공대학생의 이타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궁달화(1995). 도덕교육의 방법과 난점. **도덕교육연구**, 7, 25-41.
- 문성희 · 채정현(2001). 식생활 단원에 적용한 가정과 실천적 추론 수업이 여고생의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3), 119-130.
- 문현상(1995). 도덕성의 함양과 윤리교육. **사회와 교육**, 20, 227-243.
- 민병석(1998). 환경의 제요소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1999). 친사회행동과 그 교육. **교육심리학의 새로운 쟁점과 이론에서**. 이성진박사 정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 박윤명(1997). 도덕성의 구성요소와 도덕교육. **사회과학교육연구**, 2, 99-118.
- 박효정 · 정광희(2001).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 서병숙 · 왕석순(1996). 현대의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65-83.
- 서봉연(1984). "친사회적 행동의 규정요인에 관한 고찰", **심리학의 연구문제**, 1, 155-176.
- 손봉호 · 김해성(1997). **인성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신수정(2000). **청소년을 위한 이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자원봉사 활동을 활용하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후(1994). 도덕적 인간육성의 과제. **혜천전문대학 논문집**, 18, 135-150.
- 양병한 · 김종구(1994). 종교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생활연구소**, 7, 27-70.
- 양정혜 · 신상욱(1998). 가정과 수업의 협동학습이 학생의 교과에 대한 흥미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1), 137-151.
- 오윤희 · 채정현(2005).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족가치관과 세 행동체계별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239-255.
- 유난숙 · 김영남(1997). 세 가지 행동체계에 따른 중고등학교 가정과 식생활내용에 대한 교사의 요구 조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83-94.
- 이연숙(1995). 가정과교사의 중고등학교 가정관리 교육내용에 대한 수업 요구도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1), 81-95.
- 이정전(2003). **가정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경제, 가족해체방지 및 건강 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대한가정학회.
- 이지연(2001). **청소년상담에서 이타주의 이해의 중요성**. 청소년상담연구, 9, 158-188.
- 이진용(1996).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성적 측면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5).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섭(199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 장성수 · 이현남(1992). **도움행동의 동기적 이원성**. **대학생활연구**, 10, 275.

- 조미옥·채정현(2005).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정교과에서의 도덕성 교육에 대한 중요도와 지도수행 정도. *한국 가정과교육학회지*, 17(2), 257-272.
- 조휘일(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홍익재.
- 채정현 외 3인(2003). 실천적 후론 수업이 중학생의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1(12), 53-68.
- 채현탁(1999). 중학생의 이타행동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1).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II). 연구보고 RR 2001-1.
- 한완상(1993). *민중시대의 문제의식*. 서울: 일월서각.
- Berkowitz, L., & Daniels, L. R.(1963). Affecting the salience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norm.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429-436.
- Curran, D.(1994). 최도형 역. *건강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서울: 엘맨.
- Eisenberg, N.(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Ohio Department of Education(1995). *Work and family life curriculum guide*. Columbus: Ohio.
- Thomas, R. G.(1997). Thinking for Ethical Action in Familie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Meanings. In *Thinking for Ethical Action in Families and Communities*. AAFCS.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가정과교사의 이타적 태도와 가정과수업 중 도덕성 지도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개인적 변인에 따라 이타적 태도와 도덕성 지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정과교육에서의 이타적인 태도와 도덕성 교육을 함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자료는 울산광역시의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법을 실시하였으며, 11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 fo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를 실시하였고,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사들의 이타적 태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교사들은 사회적 책임감 중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타적 태도 중 정서적 공감에 대한 태도에서도 교사들은 타인의 처지와 감정에 대해 정서적 공감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도덕성 교육내용 지도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교사들은 생명존중, 근면성실, 용기, 경로효친 등의 도덕성 덕목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도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정과교사 개인적 변인에 따른 이타주의 태도와 도덕성 내용 지도 차이에 대해서,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에 비해서 이타주의 태도가 더 높다. 한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연령과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가정과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도덕성의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였고 경제력이 높은 교사, 종교가 없는 교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농촌에서 성장한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일부의 도덕성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고 있었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6월 4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6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9월 11일